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유물 카드



- 명칭: 스페찌르개
- 출토지: 충청북도 단양 수양개 유적
- 시대: (가) 시대
- 소개: 뎨석기로서 스페를 자루에 연결하여 창끝이나 화살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①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③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들을 축조하였다.
- ④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②

* 스페찌르개가 사용되던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나무 열매나 식물 뿌리를 채집하여 먹거나 뎨석기(예: 초기-만능 도구인 주먹도끼, 후기-스페찌르개)로 만든 창이나 활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①, 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흙을 구워 처음 토기를 사용하였는데, 빗살무늬토기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고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났다.

③, ④ 청동기 시대에 처음 벼농사가 시작되고 곡식의 이삭을 자르기 위하여 반달돌칼을 사용하였다. 또한 군장과 같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거대한 고인들을 축조하였다.

2.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습니다.
- ②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 ③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④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 ⑤ 마한의 목지국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정답: ①

* (금관) 가야에 대하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 건국 설화에 따르면 신라 때인 42년(유리왕 19) 구지봉(龜旨峰)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수로왕 등 6명의 가야국 시조가 탄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서 국가 조직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에 가야는 연맹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가야는 전신인 변한 시대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야 연맹은 지역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세력다툼을 위한 전장이 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신라에 의해 모두 복속되었다(532년 금관가야 멸망, 562년 대가야 멸망)

- ②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12월에 거행하였다.
- ③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④ 신라는 이사금 시기에 박, 석, 김의 3성이 돌아가며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⑤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마한의 맹주인 목지국을 압도하고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3.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 ②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하였다.
- ③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④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⑤ 지방에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 불교를 공인한 신라 법흥왕의 업적

신라는 눌지왕(417~458) 때에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들어왔으나 부족적 전통과 이에 기반한 신앙을 가진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여 불교 공인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흥왕(514~540) 때에 이차돈(?~527)이 자진 순교를 하여(목에 흰피가 났다고 함) 불교를 공인케 되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법흥왕은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527)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536)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② 백제 중흥을 꾀한 성왕(523~554)은 중앙 관청(22부)과 지방 제도(5부, 5방)를 정비하였다.

③ 신라 진흥왕(540~576)은 거칠부를 시키어 '국사'를 편찬하였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④ 신라 지증왕(500~514)은 이사부 장군을 시키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⑤ 백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을지문덕이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고 이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매번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술이 하루에 일곱 번 싸워 모두 이기니, 드디어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薩水)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산에 진을 쳤다.

-「삼국사기」-

(나)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강희왕 도종이 무리를 독려하여 성의 동남 모퉁이에 흠산을 쌓아 침입하려고 하니, 성 안에서 성벽을 높여서 막았다.

-「삼국사기」-

- ①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②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③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 ④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결사 항전하였다.
- 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정답: ②

* 살수대첩(612)과 안시성 싸움(645) 사이의 역사적 사실

오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 온 중국이 수에 의해 통일되었다(589).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같은 처지에 놓인 유목 민족인 돌궐과 연합하여 수에 대항하였고,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라오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598). 이에 수 문제가 침공해 왔으나(1차), 고구려는 이를 물리 쳤다.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2차).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

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대첩이다(612).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몇 차례 더 물리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았다. 고구려는 라오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당 태종은 대당강경론자인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삼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이후에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쳤다.

- ① 신라 진흥왕은 이사부와 사다함을 보내어 마지막 가야인 대가야를 멸망시켰다(562).
- ②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 백제 한성을 급습, 점령하여 개로왕을 죽이었다.
- ④ 660년 백제 의자왕의 실정으로 나당연합군을 막을 군사가 없는 가운데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항전하였으나 10배가 넘는 신라군과 화랑의 활약에 무너지고 말았다.
- ⑤ 371년 백제 근초고왕은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패권을 다투던 중 평양성에서 백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5.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 소개: 1971년 송산리 6호분의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 중 도굴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됨.



발굴 당시 모습

— <보 기> —
ㄱ. 모줄임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
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
ㄷ.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한 돌무지 무덤이다.
ㄹ.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이 출토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백제 무령왕릉

백제 웅진(공주) 시기의 중국 남조(양)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501~523)과 왕비임을 알려 주는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제 관식, 귀고리, 팔찌, 진묘수(수호 짐승) 등 3000여 점의 켜묻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 고구려와 발해의 굴식 돌방무덤은 모줄임 천장 구조의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고구려 장군총과 유사).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6. (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월○○일

쇼소인 소장 유물로 보는 고대 한·일 교류



쇼소인 소장 사하리 그릇과 청동 가위

일본 도다이 사 쇼소인의 유물 중에는 일본어로 '사하리'라고 통칭되는 금속제 그릇이 수백여 점 있다. 그중에는 꾀족한 침으로 바닥에 '위수내말(爲水乃末)'이라고 새긴 것도 있는데, '위수'는 사람 이름이고 '내말'은 [가]의 관동인 '나마'를 의미한다. 또한 청동 가위는 월지(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하여 [가]이/가 일본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①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 ② 벽란도를 통해 송 상인과 교역하였다.
- ③ 청해진이 국제 무역 거점으로 번성하였다.
-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⑤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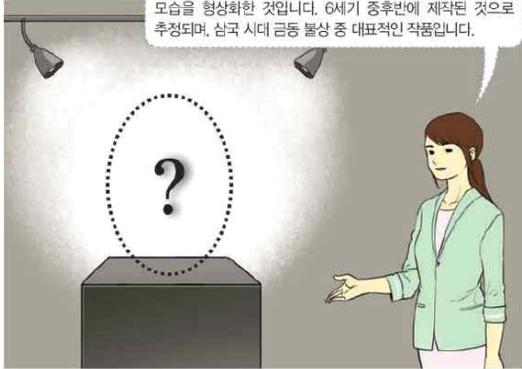
* 통일 신라의 경제

일본 도다이사는 745년에 창건되었고, '나마'는 신라의 관동이고, 신라의 궁궐터 월지(안압지) 출토 유물과 유사한 것을 통해서 통일신라임을 알 수 있다.

- ① 발해의 수출품 중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는데,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 ②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고려의 무역항으로 송, 아라비아 상인 등과 교역하였다.
- ③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장보고(?~846)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 ④ 고구려는 고국천왕 대에 실시된 춘대추납의 진대법(194)이 있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 ⑤ 조선 세종은 1444년 공법(貢法)을 마련하여 토지 비옥도에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는 전분 6등법을 실시하였다(풍흉에 따라서는 9등급으로 나눈 연분 9등법 실시)

7.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보 제78호인 이 불상은 반가의 자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6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 시대 금동 불상 중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정답: ④

*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상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78호: 날씬한 몸매)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83호: 부드러운 몸매)이 널리 알려져 있다.

① **이불병좌상**: 발해 동경성 출토. 흙을 구워 만든 두 분의 부처(석가불, 다보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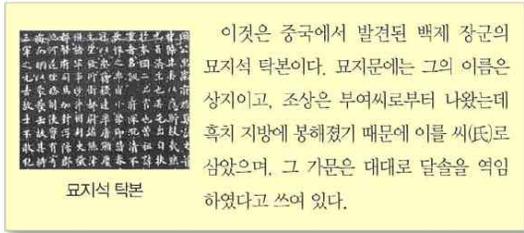
② **금동관음보살 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말선초 작품, 라마 양식)

③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이다.

④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⑤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되었다.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고구려 관련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와 관련된 명기가 있는 불상이 남한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문화재이다.

8.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 ② 완산주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웠다.
- ③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 ④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 ⑤ 안승을 왕으로 받들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정답: ④

* 흑치상지와 백제 부흥운동

의자왕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계백의 5천 결사대의 황산벌에서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그러나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한산)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대흥)에서 왕자 품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1천 척 중 400여 척이 불태워지는 큰 패배를 당하여 쫓겨갔다(663).

① 삼국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은 장인인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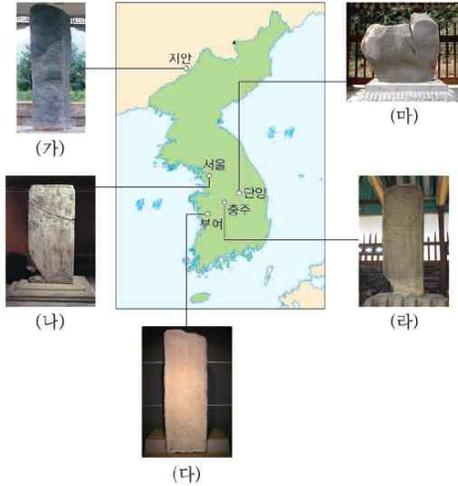
② 견훤은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③ 후고구려(901)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대동방국을 의미)으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911),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⑤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9.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1점]

국보 제3호인 이 비석은 진흥왕 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김정희에 의해 고증되기 전까지는 무학대사왕심비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국보 3호): 신라 진흥왕 (540~576)이 555년 또는 568년 이후에 세운 4개의 순수.척경비 중 하나. 한강 유역을 영토로 편입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 조선 시대에 줄곧 무학대사비로 알려졌으나, '금석과안록'을 저술한 김정희(1786~1856)에 의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원래는 서울 북한산 비봉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다.

① **광개토대왕릉비:** 만주 길림 집안 소재.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414년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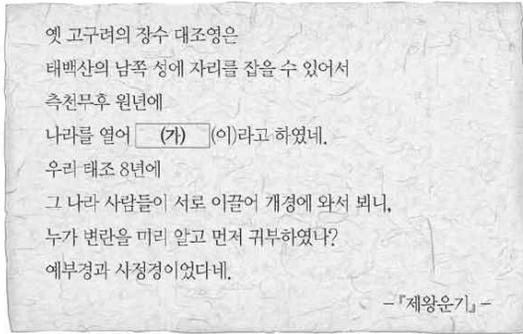
③ **단양 적성비(진흥왕, 550~551년, 국보 198호):** 진흥왕이 한강 상류의 적성을 점령하고, 야이차 등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 포상하고 위무하는 내용.

④ **중원 고구려비(481, 국보 205호):** 장수왕이 신라의 왕을 '동이 매금(東夷寐錦)'이라고 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다.

⑤ **사택지적비(654, 보물 1845호):** 백제 의자왕 때 활약했던 사택지적이 남긴 비로 늘어가는 것을 탄식하여, 불교에 귀의하고 원찰(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을 건립했다는 내용. 도교 사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10.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 ②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 ③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여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였다.
- ④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제정하였다.

정답: ②

* 발해의 유학 교육

- 창건자가 대조영이라는 것을 통해 발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발해는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는데, 당의 국자감 관제를 거의 본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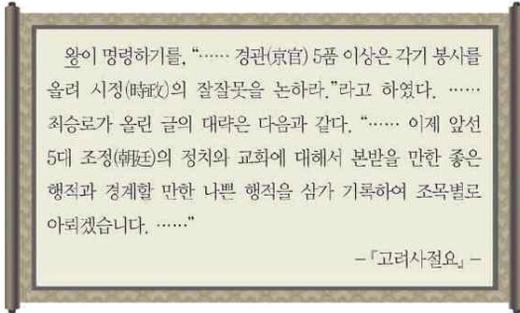
①, ③ 신라는 골품에 따른 관등 승진의 한계가 있어(6두품은 6등급, 5두품은 10등급, 4두품은 12등급까지의 관직상한선), 통일 후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④ 백제는 5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⑤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8개 조항(8조법)이 있었는데, 3개 조항(살인·상해·절도)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11.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②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 ③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정답: ①

*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고려 성종의 업적

고려 성종(981~997)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5조 치적평).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②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③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④ 공민왕(1351~1374)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⑤ 고려 태조(918~943)는 춘대추납제인 의창을 설치하기(986) 이전에 흑창을 설치하여(928),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12.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의 병사가 귀주를 지나자 강감찬 등이 동교(東郊)에서 맞아 싸웠다. …… 아군이 추격하여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니 시신이 들을 덮고 사로잡은 사람과 노획한 말·낙타, 갑옷·무기는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십만여 명 중에서) 겨우 수천 명이니 (가)이/가 패한 것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고려사」 -

- ①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격퇴하였다.
- ② 별무반을 편성하여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 ③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④ 이종무로 하여금 근거지를 정벌하게 하였다.
- ⑤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쟁을 준비하였다.

정답: ③

* 거란족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이후에도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구실로 두 차례 더 침략해 왔으나, 고려는 이를 잘 막아 냈다. 특히,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에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귀주 대첩, 1019).

이후 두 나라는 전쟁을 중단하고 강화를 맺어 사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 강화에 힘썼다. 현종 때에는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았고, 그 후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였다.

① 고려 말 우왕 대에 최무선이 끈질긴 노력을 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자, 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②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④ 조선 초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세종대(1418~1450)에는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상왕 태종의 주도 하에 이종무를 시켜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1419).

⑤ 13세기 몽골 항쟁이 벌어지며 최씨 무신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40여 년간 저항하였다.

13.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6위를 설치하였다. …… 6위에 직원(職員)과 장수를 배치하였다. 그 후에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을 설치하였는데, 2군은 6위보다 지위가 높았다.

- 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 ②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다.
- ③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 ④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⑤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 5소경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 고려의 지방, 군사 제도

-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응양군, 용호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최승로의 거의에 따라 12목 설치와 호장·부호장의 향리제도 마련하였다. 현종 때에 전국을 5도(서해·교주·양광·경상·전라)와 양계(동·북),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예종 때 완성).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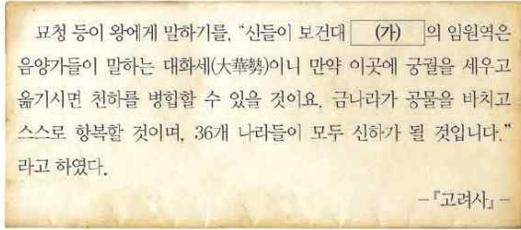
고려에서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주군·주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①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③ 고구려는 수도는 5부와 지방 176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 62개 성이 큰 성으로서 도독과 자사에 각각 비유되는 육살(褥薩)과 처려근지(處閭近支)가 성주였다.

④, ⑤ 통일 후 신라는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으며,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4.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 ②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이 설립되었다.
- ④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 ⑤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정답: ⑤

* 평양의 역사

평양은 옛 고조선의 수도였고, 고구려가 장수왕 때에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427년 천도한 고구려 후기 수도이었다.

고려 때에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어 서경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개경과 유사한 중앙부서의 분소를 설치하는 제도인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인종 때에 서경 천도를 주도하였던 묘정은 이 운동이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고(1135), 명종 때에는 무신 정권에 반대하여 조위총의 난(1174)이 일어나며,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차별받게 되었다.

조선 후기 때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 지역으로 중심으로 유상이 활동하였다.

일제시대에는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애용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망이.망소이의 난(1176)이 일어난 명학소는 오늘날 충남 공주 지역이다.
- ②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살해된 지역은 개성 선죽교이다(1392).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원산학사가 설립된 지역은 함남 원산이다(1883)
- ④ 몽골의 침략 때(1238)에 소실된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재한 곳은 경주이다.

15.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 ② 농상집요를 소개하는 관리
- ③ 당백전을 주조하는 관청 소속 장인
- ④ 공가를 받고 관청에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 ⑤ 고추, 담배 등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②

* 목화가 전래된 시기(1363)의 경제상

우리나라의 목화 재배는 1363년(공민왕 12) 문익점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목화씨를 얻어 붓통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재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① 통일 직후 신라 신문왕 때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② 고려 후기 충정왕 때에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1349)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발농사 위주의 화북 농법을 위주여서 논농사 위주의 우리 실정에 다소 맞지 않았다.

③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평통보 100배의 명목가치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1866).

④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1608)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는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해외 원산지 작물인 담배,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이 전래되었다.

1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잠담합니까?” 라고 하였다. …… 이에 (왕이)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구(奏)를 정(正)으로 고쳤다.
- 「고려사」 -

(나) 대사도 기철, 태감 권겸, 경양 부원군 노궡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족과 당여는 모두 도망쳤다.
- 「고려사」 -

- ①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② 경기 지역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③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④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우왕이 요동 정벌을 위해 이성계를 파견하였다.

정답: ①

* 원의 간섭기(1275~1356) 때의 역사적 사실

- 보기의 자료는 충렬왕 1년(1275)의 관제 개혁과 공민왕 5년(1356)의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 사이의, 즉 원의 간섭기 기간의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고 있다.

- 몽골과 강화(1270)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1274, 1281)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1280)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 ② 경기 지역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공양왕 3년(1391)이다.
- ③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에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④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이 1170년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하며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고려 말 우왕 14년(1388),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의주 소속)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규보가 쓴 이 글은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가)의 조판 동기를 밝힌 것으로,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신동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가 멀리 도망가서 다니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고 전국이 평안하며,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 주소서.



- ①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 ②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다.
- ③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④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⑤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정답: ③

*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고려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개태사 주지 수기(守其)의 지휘 아래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이규보는 '대장각판군신기교문'을 지어 부처에 고하였다).

부처의 가르침을 8만여 장의 나무판에 새겨 넣어서 팔만대장경판이라 한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가야산 소재)의 '해인사 장경판전'은 온도와 습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도록 만들어져 우수한 기록 보존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①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에 자장 율사의 건의로(643)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645).

②, ④ **직지심체요절**: 1372년 경한(백운 화상)이 부처와 조사의 계승·법어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책을, 경한의 입적 후인 1377년 청주의 교외에 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국보 126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751)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18.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는 충선왕을 수행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또한 역용패설을 저술하고 역사서인 사략을 편찬하였습니다.

- ① 고려에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 ②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 ③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⑤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정답: ③

* 고려 말의 성리학자 이제현(1287~1367)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향이였으나(1290), 백이정(1247~1323)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 시켰고, 그의 제자 이제현(1287~1367)은 원에 설립된 만권당(1314)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1328~1396)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공민왕 때(1367), 이색은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키며 신진사대부로 성장케 하였다.

또한 그는 패관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역용패설'과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대표하는 '사략'을 저술하였는데, 지금은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 전한다.

② 고려 문종 때 활약한 최충(984-1068)은 해동공자라는 칭송을 들었으며, 고려의 유학을 한 차원 높였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④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⑤ 이항(1501~1570)은 성학십도에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라야 되며 군주의 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였다.

1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용거한 김사미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인데,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각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대장군 전존길에게 장군 이지순 등을 이끌고 가서 남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고려사』-

918	1009	1126	1170	1270	1388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김조의 정변	이자겸의 난	무신 정변	개경 환도	위화도 회군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고려 무신 정권기 김사미와 효심의 난

무신정변(1170)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예: 이의민).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문신 출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정중부, 이의방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고(1173), 이어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1174~1176), 이 때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이어 남부 지방에서도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경주 주변 지역인 운문(청도), 초전(울산)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 부흥 운동을 부르짖으며 봉기하였다(1193).

최충헌(1196~1219)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20.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조상에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 (가)

1. 문헌 자료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가) (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 원컨대, 지금부터 (가)에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이 순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

2. 관련 행사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꿈쩍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손을 대도 발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는 개사초(改莎草)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하였다.

- ①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치기
- ② 새알심을 넣어 팔죽 만들기
- ③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 감기
- ④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 먹기
- ⑤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한 부럼 깨기

정답: ④

* 한식(寒食)의 세시풍속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 4월 5, 6일 경이다. 춘추시대 진문공과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고사에서 유래와 관련 있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이날에 보통 성묘(省墓)를 한다.

① **삼진날**: 음력 3월 3일.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② **동지(冬至)**: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대설과소한 사이이다.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새알심을 넣어 붉은 팔죽을 쑤어 먹었다.

③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⑤ **정월 대보름**(음력 1.15): 일명 상원(上元)으로 불리운다. 한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21.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 ②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 ③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우기가 제작되었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되었다.
- ⑤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정답: ⑤

* 주자소를 설치한 조선 태종의 업적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개국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재위:1400~1418)은 지배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그 정치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 업무를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게 하는 6조직계제를 채택하였다. 또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였다.

한편,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종은 국가의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으며, 지방 권세가를 통제하여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문화적으로는 조선 시대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던 관청으로서 1403년 주자소를 설립하였고, 김사형, 이회 등을 시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① 조선 성종(1469~1494)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집현전을 계승하여 언론기관으로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1478).

② 광해군(1608~1623) 때에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1610)을 펴내 전통 의학을 집대성하였다.

③ 세종(1418~1450) 때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④ 영조(1724~1776) 때에 국가적 사업으로 흥봉한 등을 시켜 '동국문헌비고'(1770)가 편찬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2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글은 [가] 이가 태조를 칭송한 문덕곡의 서문입니다. 그는 조선경국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시자 큰 포부를 지녀 계획을 세우시고, 백성과 더불어 나라를 바로잡아 정치를 시작하시니 칭송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 중요한 내용을 들자면, 인로를 열고 공신을 보전하였으며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예악을 제정하셨다.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②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 ③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④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였다.
- ⑤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 정도전에 대하여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이며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은 고려 말 공민왕 대에 이색을 중심으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통해 교유해온 신진사대부들 중 하나로 신돈의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383년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와 만나 제휴하였고, 이후 이인임 권문세족 정권과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지속하려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조준 등과 함께 과전법(1391)을 주도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결국 역성혁명의 입장을 주도하며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남은(1354~1398) 등과 요동 정벌을 추진하며 세자 방석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

② 수양대군(세조)과 한명회, 권람 등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계유정난이다(1453)

③ 세종 때(1443)에 통신사의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여 성종 때(1471)에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일본국과 유구국(琉球國)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④, ⑤ 중종 때(1506~1544)에 조광조(1482~1519)가 중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가 실시되어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또한 그는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수미법(收米法)을 주장하였는데, 후일 이이, 유성룡 등도 건의하여 1608년에 대동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23. (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음/를 설치한 것은 당초에 학문을 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선비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따라서 향사(享祀)의 대상이 될 사람은 시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선비라는 사람은 학문을 일삼지 않고, 향사할 사람은 당치 않은 인물이기도 하여 사원(祠院)은 많으나 사문(斯文)은 더욱 침체되니 실로 한심스럽습니다. …… 지금부터 새로 창설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함께 의논해서 공론으로 허용된 후에 창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① 주세붕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 ②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③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 ④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 ⑤ 매항 활동을 하면서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정답: ①

* 서원에 대하여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1543).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향사:享祀),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켜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주고,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향촌의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서원은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봉당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이 있어 탕평책을 실시한 영조는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300여 개).

또한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던 흥선 대원군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② 향촌 자치를 위하여 사족(士族) 설치한 기구인 유향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③ 지방의 중등교육 기관인 향교는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종6품) 또는 훈도(종9품)를 파견하였으며, 5~7결의 학전을 지급하여 그 수세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④ 조선 중종 때에 조광조(1482~1519)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반정 공신 중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도교적 행사인 초제 주관 기관)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⑤ 고려·조선의 농민 공동체 조직인 향도는 매향(埋香) 활동을 통해 평안을 기원하는 신앙적 기반과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었다. 즉 주로 상(喪)을 당하였을 때에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상여를 메는 사람인 상두꾼도 향도에서 유래하였다.

24.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이르시기를, “요즈음 일로 말하건대 임꺽정이 많은 죄를 짓고도 오래도록 법을 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욕만 당하고 쉽게 잡지 못하니, 이는 오로지 경외(京外)가 무비(武備)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뒷날 을묘년의 왜변과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니 한심하구나.”라고 하였다.

- 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②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③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 ④ 사림이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정답: ②

* 임꺽정의 난이 있던 조선 명종 대 (1545~1567)의 역사적 사실

명종(1545~1567, 문정왕후 소생)은 이복형인 인종(1544~1545, 장경왕후 소생)이 1년 만에 죽자 어린 나이(12세)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의 외척인 대운(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소운(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람이 연루되어 큰 희생이 있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 양종 부활(1551) 및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되었다(1552).

그러나 집권 훈척 세력의 권세와 탐욕이 극도에 달하며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해택지(海澤地)나 산록(山麓)을 개간하여 땅을 넓혔다. 특히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며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예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① 현종 대(1659~1674)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國喪)에서 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기해(1659), 갑인(1674) 2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③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람은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김종직(1431~1492)과 그 문인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④ 봉당 정치는 선조 이후로 중앙정계를 장악한 사림 내부의 분열과정이다. 선조 8년(1575) 이조 전랑을 놓고 김효원과 심의겸 세력 간의 동·서 분당이 시초이다.

⑤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광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 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한 사건이 갑자사화이다(1498)

25.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저희 배가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해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렇게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 당신을 만나니 안심이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 서양인이 화포를 잘 다룬다고 여기니, 허멜 재네는 한양에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가)에 배속되어 총포의 제조 및 조작법을 병사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네.



- ① 국경 지역인 양계에 배치되었다.
- ② 소속 군인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 ③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④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였다.
- ⑤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정답: ③

* 5군영 시초 훈련도감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번급료병).

한편, 17세기에 벨테브레이와 허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다. 1628년 표류한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며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고 한국인 부인을 얻어 정착하였으나, 1653년에 표류한 허멜 일행은 훈련도감에서 총포 기술을 전수하던 중 탈출에 성공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가 허멜 표류기(1668)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전하였다.

① 고려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② 고려 시대의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세습되는 토지로서 그 대상은 2군 6위의 중앙군이였다.

④ 조선 초기에는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고, 후기에는 위로는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는 속오군이 있었다.

⑤ 조선 후기에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26.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고금천하의 법 중에 군율보다 엄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홍립, 김경서 등은 중국 군대의 함께 적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험껏 싸우다 죽지 않고 도리어 투항을 청하여 적의 뜰에 무릎을 꿇었으니, 신하의 대의가 땅을 쓸듯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 청건대 강홍립·김경서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서 구금하라고 명하심으로써 군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소서.

- ①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 ④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 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정답: ④

* 강홍립의 투항(1619) 이후의 역사적 사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재위: 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1608).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1610)을 편찬하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그러나 광해군과 복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폐모살제)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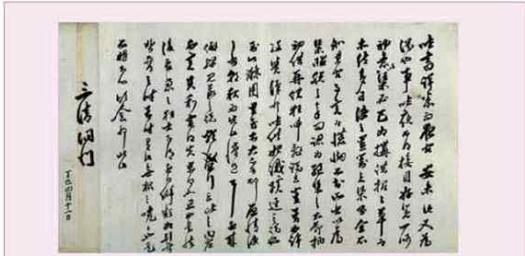
① 조선 세종 때에 4군(최윤덕, 1433)과 6진(김종서, 1449)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② 임진왜란 때에 명의 원군이 도착하고,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였다(1593.1.6)

③ 선조 때(1589)의 기축옥사(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로 서인이 일시 집권하였다.

⑤ 조선 세종 때에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건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27.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편지는 (가) 이/가 노론 벽파의 영수인 심환시에게 비밀리에 보낸 어찰이다. 이 편지에서 그는 “최근 벽파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이 성행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벽파가 뒤죽박죽 되었을 때에는 종종 이저법 근거 없는 소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친인 사도 세자의 추숭(追崇)을 반대한 노론 벽파의 영수와도 수차례 편지를 교환하였다.

-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계를 정비하였다.
- ③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④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 기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 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⑤

* 정조의 정책

부친 사도세자가 참혹하게 죽은 임오화변(1762)을 통해 붕당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정조(1776~1800)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준론 탕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장각(1776)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고 서얼 출신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을 검서관으로 삼았고, 37세 이하의 참상·참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의정부에서 초선하여 규장각에 재교육(40세에 해제)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법전으로는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본래 양주 배봉산에 묻혀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화성군 화산으로 옮기고(현릉원)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신해통공(1791)의 실시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① 고종(1863~1907)의 광무개혁 때에 양전사업(1898)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1901).

② 경국대전이 이후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별도로 영조(1724~1776) 때에 속대전(1746)을 편찬하였다.

③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④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1863~1873)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국 기무)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2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평안도에서는 설점(設店)한 이후에 간사한 백성들이 때를 틈타 이익을 다투어 사사로이 잠채(潛採)하고 있다. 설점한 고을이 아니더라도 잠채하지 않는 곳이 없다. 보지나 논밭을 가리지 않고 굴을 뚫고 땅을 파헤쳐서, 마을이 소란스러워짐이 말로 다할 수 없다. 쌀값이 크게 오르고 도둑질이 끊이지 않으며,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생업을 팽개치고 이익을 좇는다.

- ① 상평통보가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 ② 강희맹이 농서인 금양잡록을 저술하였다.
- ③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 ④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⑤ 왜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②

* 잠채가 성행하던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조선 후기에는 수리 시설이 확충되며 모내기 법(이앙법)이 널리 확대되었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이용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또한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여기에는 보부상들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이외에도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팔았다. 또한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왜관 개시와 후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해외 원산지 작물인 담배,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등이 전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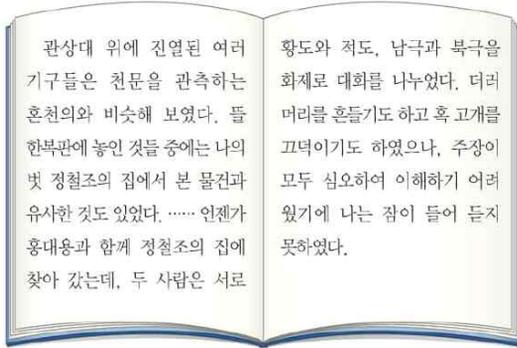
18세기 이후 송상, 경강 상인 등의 사상(私商)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을 재배·판매하였으며,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숙종 때에 허적 등의 건의로 주조된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광업에서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하였다(잠채).

② 성종 때 문신 강희맹은 네 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술한 농서인 금양잡록(1492)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당시 경기도 금양(시흥) 일대의 농업 사정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9. 다음 글이 작성된 당시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 ②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했다.
- ③ 성현 등이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 ④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⑤ 서예에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도입되었다.

정답: ④

* 홍대용이 활약하던 조선 후기 문화 동향

-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과학 연구에 힘써(사설 천문대, 혼천의 제작)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최초: 홍길동전)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설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였다.

①, ②, ③ 조선 전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도'(1447), 김시습(1435~1493)이 지었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음악 서인 성현의 '악학궤범' 등이 만들어졌다.

⑤ 고려 후기에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송설체(조맹부체)가 유행했는데, 이암이 뛰어났다.

30.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시집은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연의 시를 모은 것이다. 그는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여 일어난 이 사건 당시 항복한 선천 부사 김익순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후에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임을 알고서 수치스러운 삿갓을 쓰고 방랑길에 올랐다고 한다.

- ①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었다.
- ② 집강소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 ④ 홍경래의 주도로 가산, 정주성 등을 점령하였다.
- 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④

* 홍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 봉기였다(1811).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우군직, 홍총각 등이 주도하며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방랑시인 김병연의 조부인 부사 김익순 투항),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 개혁신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①, ⑤ 세도정치기의 최대 농민 봉기인 임술 농민봉기(1862) 중 하나인 진주민란은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②, ③ 1894년 2월 고부봉기 후 해산되었던 전봉준의 동학교도들은 안핵사 이용태에 의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 이후 황토현, 황룡촌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고,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각지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지난 을축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에, ……
 (가)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양첩 소생은
 손자 대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 소생은 증손 대에 가서 허용하며,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님의 재가를 받았습니니다. …… 지금부터는 전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망: 관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보 기>

ㄱ.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ㄴ. 수차례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ㄷ.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ㄹ.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서얼에 대하여

서얼(양인 첩의 자제:서, 천인 첩의 자제: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이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동반(문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얼통청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정유서얼허통절목(1777)을 발표를 계기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851(철종 2년) 신해허통 조치로 사관(四館) 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반면에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 운동은 실패).

㉠ 조선 시대 백정의 원류인 고려 시대의 양수척(揚水尺,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자), 화척(禾尺, 짐승을 잡는 자), 재인(才人, 기예가 있는 자)은 대개 거란족이나 여진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었는데 신랑역천보다도 천한 취급을 받았다.

㉡ 1920년대에 백정들은 일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3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시아버지 죽어 이미 삼복 입었고
 갓난아이 배냇볼도 다 안 팔았는데
 삼래의 이름이 관직에 모두 다 실렸으니
 가서 억울함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경(里正)은 호통치며 외양간 소 끌고 갔네.

이 글은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표현한
 애절양이란 시야.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은
 (가)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어.
- ②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어.
- ③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어.
- ④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을 설치했어.
- ⑤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마련했어.

정답: ①

*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실시

- 이 시는 군적의 문란을 비판한 정약용이 1803년에 지은 애절양(哀絶陽: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을 슬퍼함)이라는 시이다.

- 조선 후기에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군포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군포를 부담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군역의 폐단을 시정기 위해 영조 때에 군역법이 시행되어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1750). 또한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군역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군역의 폐단은 사라지지 않자, 흥선 대원군은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1871). 양반은 노비의 이름으로, 서민은 군역(軍役)을 대신으로 포를 바치게 하였으며, 그 후 포를 전(錢)으로 대치, 매호 2냥(兩)으로 하여 양반도 군포를 부담케 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③ 조선 전기 세조 때에 현직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1466)

④, ⑤ 고려의 사회시책으로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의창이 있었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33.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운요호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 ② 병인박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진하였다.
- ⑤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답: ④

* 신미양요(1871.6)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근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8).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로저스 제독 통솔)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수자기를 빼앗김).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④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하는 일종의 포함외교인 운요호 사건(강화 해협에 불법침입하며 도발)을 일으켰다(1875.9).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1).

34.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일본 총영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먹을 것이 없는 참상이 눈앞에 가득하니, 곡물 수출은 당분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음력 을유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쌀 수출이 금지되니 이러한 점을 귀국의 상민(商民)들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② 러시아가 절영도 조처를 시도하였다.
- ③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 ④ 시전 상인들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 ⑤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개항(1876) 직후부터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곡물 값이 크게 올랐고,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지자, 함경도·황해도·충청도 등지의 지방관 등은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하였다(1889).

그러나 일본은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억지 구실로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방곡령을 철회시켰고 오히려 막대한 배상금까지 받아 냈다.

②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 저탄소 조처를 시도하였으나, 1898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③ 1904년 6월에 일본인 나가모리가 어공원(御供院) 소관의 산림·천택과 황무지 개간권을 이양받기 위해 일본공사관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넣게 되자, 보안회는 반대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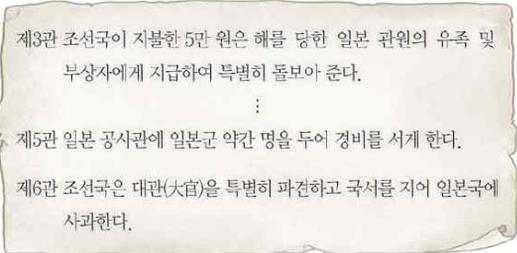
④ 개항 이후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1898.9)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정답: ①

* 1889년 방곡령 선포의 배경

35.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 ②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③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 ④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김옥균 등이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정답: ①

*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지며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여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택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밀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장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조약(1882.8)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3차 수신사: 박영효),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② 갑신정변 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7).

③ 을미사변(1895.10)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수병의 도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었다(아관 파천(1896.2~1897.2)).

④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후 농민군들은 황토현, 황룡촌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였다(1894.5.31.).

⑤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의 내정간섭과 개화정책의 후퇴하게 되자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개화파들이 일본을 힘입어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12)

36.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제 의견은 청·러시아·일본 3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여 서양 스위스의 예에 따라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혹 뒷날 타국이 공벌(攻伐)하고자 해도 조선에서 길을 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스스로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국경을 지키면서, 각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을 한다면 영원히 큰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 독일 부영사 부들러 -

1876	1884	1894	1897	1904	1910
	(가)	(나)	(다)	(라)	(마)
강희도 조약	갑신 정변	청·일 전쟁	대한 제국 수립	러·일 전쟁	국권 피탈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 부들러의 중립외교론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3월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의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라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거문도 사건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한편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1856~1914)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7.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성, 체력, 지혜를 기르라. 왕실의 안전도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고, 나라의 부강도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다.

- ① 박문국이 설치되었다.
- ② 육영 공원이 세워졌다.
- ③ 조사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 ④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⑤ 한성 사범학교가 건립되었다.

정답: ⑤

*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의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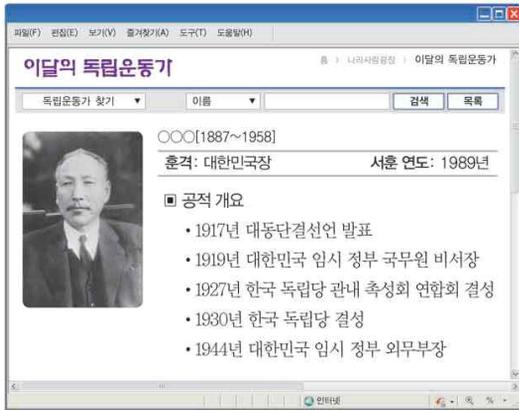
1895년 2월 고종은 국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중흥과 국가 보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조치의 정신에 따라 동년,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 5월의 '외국어 학교 관제', 7월의 초등 교육을 위한 '소학교령', 등 근대적인 학교 설립을 뒷받침해 줄 각종 관제와 규칙이 제정되고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①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따라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1883)를 발간하였다.

② 개항(1876,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에서는 외국어 교육 학교인 동문학(1883)에 이어 육영공원(1886)을 세우고 미국인 교사 세 사람(헐버트.길모어.번커)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③, ④ 개항 후 정부는 개화 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고,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 기구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朝士) 시찰단을 파견하였다(1881).

3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도쿄에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② 재미 한인들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 ③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④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창하였다.
- ⑤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④

* 삼균주의를 주창한 조소앙

좌우와 남북의 대립을 배격하는 중도 우익적인 독립운동가. 일찍이 3.1운동에 영향을 준 만주에서의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1918.11)에 참여하였으며,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여 주요 요직을 맡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의 좌우 대립을 안타까워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 민족, 국가 사이의 완전한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 이념을 일찍부터 생각하였다.

1930년에는 이동녕, 안창호, 김구(1935년 한국국민당으로 이탈) 등과 함께 순수한 민족주의자 중심의 정당인 한국독립당(상해)을 창설하여 정강으로 그의 삼균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5년 단일 연합 전선을 위해 김원봉이 주도한 조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다가, 동년 9월에 김원봉의 노선과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 등을 문제삼아 탈퇴하고 한국독립

당을 재건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는 총칭에 정착(1940.9) 직전 김구 주도하에 3당(한국국민당-김구, 조선혁명당-지청천, 한국독립당-조소앙) 합당하여 통합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임시정부의 여당인 된 한국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제정·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반탁이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이었다. 김구,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1948.4)에도 참여하였지만, 협상 실패 후 동년 10월에 한독당과 결별하고 남한 정부 수립을 인정하였으며 2대 국회의원 선거(1950.5)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하였으나 6.25 중 납북되었다.

① 1932년 1월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1900~1932)는 도쿄에서 일왕 마차에 폭탄 투척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② 신민회를 이끌던 안창호(1878~1938)는 국권 피탈 후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여, 무실역행(務實力行)의 기치 아래 실력양성 운동에 힘썼다.

③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1859~1925)은 개항기 역사(1864~1911)를 다루며 국혼 사상을 언급한 '한국통사(1915)를 저술하였다.

⑤ 중도 좌익의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인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3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조사 보고서

◎ 주제: 개항 이후 들어온 근대 문물

1.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 운영 시기: 1908~1909년
- 특징
 - 개장 초기 판소리를 공연하기도 함.
 - (가)
 - 극장 건물은 1914년 화재로 소실됨.

• 사진 자료



- ①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 ②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되었다.
- ③ 신간회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④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 ⑤ 은세계,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정답: ⑤

정답: ⑤

*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1908년 극장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 <치악산> 등의 신소설을 각색하여 연극으로 공연하며 신극운동이 시작되었다.

① 개항 후 서양 의학이 보급되면서 선교사 의료인인 알렌의 건의로 근대 의료 시설인 광혜원(1885년 1월 설립, 동년 3월 제증원으로 개칭,

② 민족 의식을 일깨운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 극장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③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완전 독립론)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1927년 2월 서울 YMCA에서 창립되었다(회장 이상재)

④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 터에 단을 만들어 원구단을 조성한 후 10월에 거행하였다.

40.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 ① 이만손 등이 영남 만민소를 올렸다.
- ②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③ 독립 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④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순국하였다.
- ⑤ 13도 연합 의병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처분, 고등 관리의 임명에 대해 통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으로 임명하여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한편,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1)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등이 있다

①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어 미국과의 수교가 고려되자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영남만민소(1881)를 올려 반대하였다.

②, ④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민영환과 조병세는 자결로써 항의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 양반 출신 민종식(홍성), 최익현(태인), 평민 출신 신돌석(평해) 등이 활약하였다.

③ 아관파천(1896.2) 이후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정답: ⑤

* 한일신협약과 정미의병

41. 다음 민족 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정오가 가까워 오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29인이 이 협소한 자리에 모였다. 33인 중 4인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정오가 되자 태화관의 정자 동쪽 처마에 태극기가 걸렸다. 일동은 근엄한 자세로 태극기를 향하여 경례하였다. '독립 선언서' 낭독을 생략하고 이종일이 선언서 백 장을 탁자 위에 놓고, 한용운이 일장의 식사(式壽)를 한 뒤에 그의 선장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한편, 탑골 공원에 모인 학생들의 대한 독립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공원에 모였던 수천 명의 학생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보 기)—

- ㄱ. 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 ㄴ.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 ㄷ.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 ㄹ.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3.1 운동의 배경

일제의 무단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고무되어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이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 도시와 농촌까지 파급되었고,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각계각층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 사회주의자와 학생(조선학생과학연구회)들을 중심으로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계획된 만세시위 운동은, 사회주의자측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음에도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진행되었다(1926년 6.10 만세 운동)

㉡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던 사회주의 세력은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제휴하였다. 그 결과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2)

42. (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 ② 독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 ③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④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전개하였다.
- ⑤ 임시 사료 편찬 위원회를 두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정답: ④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입법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초기의 임시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 국내외를 연결하는 연락기관인 교통국과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통하여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정보수집에 기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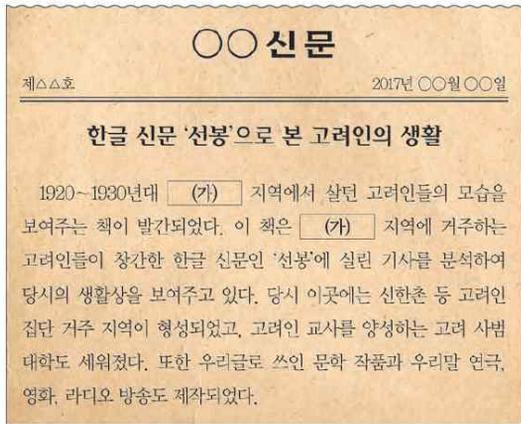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외무총장 김규식의 파리위원부도 포함)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한편,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독립군을 임시정부 직할의 군대로 개편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등이 결성되었다.

또, 임시정부는 애국(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④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신민회 회원인 이승훈은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43.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홍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②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하였다.
- ③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④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⑤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 명동 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정답: ③

*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으나 동년 9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 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한편,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 사회당(1918)이 조직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일 전쟁 직후인 1937년에는 일본군의 연해주 침략 빌미를 제공치 않기 위한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수많은 교민들이 강제이주 당하였다.

①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홍 강습소(후일 신홍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②, ④ 1902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지역의 교민들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1910) 등의 자치 단체를 만들어 한인 사회를 발전시켰다.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⑤ 북간도 지역에 서전서숙(1906, 이상설), 명동 학교(1908, 김약연) 등 민족 학교가 세워져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44.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 주제: 우리 고장의 일제 강점기 군사 시설
 ■ 날짜: 2017년 ○○월 ○○일
 ■ 답사지 개관

우리 고장에는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인 향파두리 향몽 유적이 있다. 한편 일제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군사 시설 등의 유적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비행장과 격납고, 그리고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 해안 절벽에 굴을 뚫어 만든 동굴 진지가 있다.

■ 유적지 사진



알프스 비행장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

- ①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목적을 살펴본다.
- ②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알아본다.
- ③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지역을 찾아본다.
- ④ 김만덕의 빈민 구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조사한다.
- ⑤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지역을 파악한다.

정답: ③

* 제주도의 역사

-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는 고산리식 토기로 불리는 이른민무늬토기와 함께 제주도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오래된 토기로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약 B.C 1만년까지 소급하게 하였다.

-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용장성)와 제주도(향파두리성)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1270~1273). 원의 간섭기 때에는 말 사육에 유리한 이곳에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었다 반환되기도 하였다(1273~1284).

- 조선 후기 정조 때에는 제주 관기 출신의 여류 거상(巨商) 김만덕(1739~1812)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의 구제를 위해 자기 재산을 과감히 출연하는 등 온 힘을 썼다.

- 일제 시대에 조선 주둔 일본군이 제주도 모슬포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1920년대~1930 중반기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여 중일전쟁 때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 태평양 전쟁(1941.12) 이후에는 알프스 비행장과 최후의 거점으로 송악산 해안 동굴 진지 등을 조성하였다.

-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1948년의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3만여명 희생, 2개 선거구 불능)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③ 신유사옥(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45. 밑줄 그은 '이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건물은 난징 리자상 위안소 구지(舊址) 전열관이다. 리자상 위안소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운영되었다. 난징

대도심에 위치한 이곳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북한의 고(故) 박영심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왔던 위안소임을 증언하면서 개발이 중단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일제의 전쟁 범죄를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관으로 새로 개관하였다.

- ①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 ② 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 ③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 ④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 ②

* 위안부 만행이 있었던 총동원 체제 시기

일제는 중일전쟁(1937.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4월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작업복인 몸빼 바지 강요),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 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농기구와 집안의 놋그릇,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③, ⑤ 1910년대에 일제는 무단통치를 행하며,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1912년 제정)을 시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관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하여 미신고 토지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회사령(1910~1920)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스러운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④ 1925년 6월 일제와 만주 군벌(장쥘린)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46. (가), (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광복군 총영에서 활동하였고, 1931년 국민부 산하 [가] 의 총사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만주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38년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군사 조직인 [나] 을/를 조직하였습니다.



- ① (가) -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② (가) -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 ③ (나) - 대전사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④ (나) -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가), (나) -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혁명군과 조선 의용대

-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던 김원봉은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 연맹을 결성

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이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였다.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으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7).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군무부장)와 한국 광복군(1지대장)에 합류하였다(1942.5).

①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하던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의 제 독립군들은 그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소련의 지원을 믿고 만.소 접경 지역인 밀산부에서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1920.12, 총재 서일),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공산당 간의 갈등 속에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1921.6).

③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사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②, ⑤ 태평양 전쟁(1941.12)이 발발하자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후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 미국과 미국전략정보국(OSS)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다소 이른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47.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 5천 년의 주권과 3천 만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의례의 타치 세력을 배격함에 있다.

○ 신탁 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그것은 을사조약이나 위임 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과도 아주 판이할 것이다.

- ①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 ②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 ③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보도되었다.
- ⑤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정답: ④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의 결과

1945년 8.15 해방 직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미군-직접통치, 소련군-김일성을 내세운 간접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하는 좌익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차: 1946.3~5, 2차: 1947.5~8)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론을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7.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남한을 입국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① 6.25 전쟁 종전 직전, 종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여 충격을 주었다(1953.6.18.).

③ 제헌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여 국회 산하 반민특위(1949. 1~8) 활동이 있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시효가 단축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48.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부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품을 달고 다니는 자'를 경범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젊은이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였다.

- ① 프로 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 ②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③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③

* 1970년대의 사회모습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대중문화와 국민의 일상을 통제·억압하였다. 197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며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일상에서는 장발 단속을 하여 머리카락이 긴 청년들은 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 경찰에 잡힐 경우에는 즉석에서 머리카락이 쥐가 파먹은 모양으로 잘리고, 경범죄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젊은 여성들도 치마도 길이를 재서 15cm가 넘으면 경범죄를 적용하여 단속하였다.

①, ④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프로 야구단을 창단케 하였으나 (1982), 교육을 통제하고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과외 전면금지를(1980.8), 안일한 학문풍토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대학 졸업정원제를 단행하였다(1981).

② 노무현 정권(2003.2~2008.2) 때인 2005년 3월 현재의 위헌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져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③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은 공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개발과 소득 증대를 위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를 하고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등에 힘입어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 ㄴ.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 ㄷ.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ㄹ.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⑤

* 6월 민주화 운동(1987)

대통령 간선제 헌법과 전두환 정부(1980~1987)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연세대생 이한열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 1980년 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비록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 시민혁명으로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하야하고(4.26)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50.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조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③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정답: ②

*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첫 집권한 노태우 정부(1988.2~1993.2)는 88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1990), 중국(1992)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1991.8)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1991년 12월에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①, ④ 197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대화의 노력이 결실하여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2000년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개성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입주)과 경의선 연결(2000.9.18~2002.12.31. 남측 완료),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이 합의.실현되었다.